

최연의 산 이야기 <2> 북한산 1

북한산이 아니라 삼각산이로구나

산은 그 형상(形象)으로 보아 골산(骨山)과 육산(肉山)으로 나누어진다. 골산은 금강산·설악산과 같이 바위가 많은 산으로 지혜(智慧)를 상징하고, 육산은 지리산·덕유산과 같이 바위가 적고 흙이 많은 산으로 자비(慈悲)를 상징한다. 바위는 기를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산에 들어 도를 닦는 이들은 흔히 바위 위에서 수련을 하였고, 예수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바위산에 올랐다.

<택리지 擇里志>에 따르면 산 모양이 돌로 이루어진 골산이어야만 산이 수려하고 물 또한 맑고 강과 바다가 서로 만나는 곳에 좋은 터를 부러놓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곳이 나라 안에는 개성의 오관산(五冠山)·한양의 삼각산(三角山)·진잠의 계룡산(鷄龍山)·문화의 구월산(九月山) 네 곳이라고 한다. 특히 삼각산은 역시 골산인 도봉산(道峰山)과 연달아 엮힌 산세에서 돌 봉우리가 무척 맑고 만 즐기 불이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산(北漢山)은 <산경표 山經表>의 산줄기 개념으로 보면 한강 북쪽에서 흘러내려와 한강을 건너지 못하는 산줄기인 한북정맥(漢北正脈) 상에 있는 산이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白頭大幹)이 동해 연안을 따라 남쪽을 향하다가 강원도 평강군 분수령에서 서남쪽으로 꺾어져 적근산·대성산·광덕산을 일구고,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인 광덕고개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솟구쳐 백운산·국망봉·정계산·운악산을 지나며 낮낮이를 이어온다. 포천과 의정부를 넘나드는 축서고개에서 그 높이를 현저히 낮추고 불국산? 도봉산을 지나 북한산과 도봉산을 가르는 우이령에서 분출

기는 서향(西向)하여 노고산에 잠시 솟구쳤다가 장명산에서 임진강 하류로 숨어들어 산줄기의 뻗음을 마감하고, 또 다른 한줄기는 남향하여 백운대(白雲臺)·인수봉(仁壽峰)·만경대(萬頃臺)를 솟구쳐 입구어 놓았으니 이를 삼각산(三角山)이라 하는데 속칭 북한산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그리고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북한지> <대동지지> 등 역대 지리서와 조선왕조실록에 북한산을 한결 같이 삼각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운대(836.5m) 인수봉(810.5m) 만경대(799.5m)의 세봉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모양이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세 뿔 즉 삼각산(三角山)으로 불려졌다. 그럼 북한산이라 이름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삼국시대부터 지금의 서울지역인 한강유역을 한산(漢山)이라 하였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지역을 북한산(北漢山), 남쪽지역을 남한산(南漢山)이라 하고 한산에서 가장 양자바른 곳을 한양(漢陽)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산이란 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산이 도읍지를 부러놓은 명산이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이성계가 산에 올라 시를 남겼고, 나라의 경계를 굳건히 하고자 진흥왕이 산에 올라 비석을 남겼고, 원효·의상·도선·보우·탄연·진관·승가·법경 등의 스님들이 수행을 위하여 산에 들어 절을 지었고, 숭한 사대부 양반들이 산에 올라 산천 경계를 감상하고 유산기(遊山記)를 남기기도 하였다.

삼각산의 한 봉우리인 인수봉 뒤에 튀어나온 바위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애를 업고 있는 형상이어서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부아악(負兒岳)이라 했고, 삼국시대에는 북한산을 가로 놓고 대치하여 길항하고 있었으니 이 때문에 가로 횡(橫)자를 사용하여 횡악(橫岳)이라 불렀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이 자기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기운이 결집되어 꽃같이 피어난다는 의미로 중화(中華)라고 칭하고 있듯이 화악(華岳) 또는 중악(中岳)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산의 격(格)을 말해주는 기준으로 최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12종산(宗山)이 있으니, 북한산도 그 중의 하나이다. 백두산·원산·남령산·두류산·분수령·태백산·속리산·장안산·지리산은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다른 산줄기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조종처(祖宗)의 위치인데, 북한산은 금강산? 오대산과 더불어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종산의 반열에 들었다.

천하명산 금강산(金剛山)이야 종원(中原)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고, 오대산(五臺山)은 불법(佛法)의 보고(寶庫)이니 종산이 되고도 남을 터인데, 북한산은 이도저도 아니면서 종산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산이 부러놓은 터가 한 나라의 도읍을 가능하게 한 명산이었기에 그러하다.

이처럼 북한산이 도읍지를 부러놓은 명산이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이성계가 산에 올라 시를 남겼고, 나라의 경계를 굳건히 하고자 진흥왕이 산에 올라 비석을 남겼고, 원효·의상·도선·보우·탄연·진관·승가·법경 등의 스님들이 수행을 위하여 산에 들어 절을 지었고, 숭한 사대부 양반들이 산에 올라 산천 경계를 감상하고 유산기(遊山記)를 남기기도 하였다.

■ 최연 (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북한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인 백운대(원쪽)과 수려한 기암이 돋보이는 인수봉(오른쪽).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노란 개구리

흐르는 물 가운데에 있는 돌을 들추니 웅크리고 있는 개구리가 보였다. 통통한 것이 알을 낳지 않은 암컷이었다. 불잡아 물 밖으로 들어올리니 배와 다리에 달라붙은 거머리 세 마리가 보인다. 노란빛을 띤 배에 흑처럼 붉은 거머리를 떼어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자, 한 번 잡아봐.”

이그그그, 조카는 흥측한 벌레를 대할 때처럼 얼굴에 놀라움과 공포와 호기심 등이 뒤섞인 표정을 떠올리며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으려 한다.

“손으로 꼭 잡아!”

개구리의 몸통을 잡고 뒷다리를 내밀며 힘주어 말했다. 내 말을 어찌하지 못하고 조카는 뒷다리를 움켜잡는다.

22살의 조카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어릴 적부터 또래 아이들과 학교 선생들의, 놀림과 배척과 폭력에 길들여지면서 나이를 먹은 조카였다. 형님과 형수님도 상황을 인식하곤 있었으나, 정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장애자라고 하기도 어려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잘 되겠지’ 하다보니 세월만 흘렀다.

“어때, 괜찮지?”

“예, 괜찮아요.”

“그게 식용개구리야.”

“이걸 먹는다구요? 아하, 엄마도 개구리 뒷다리가 맛있었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먹어 불러?”

“아아 그건 아니구요.”

조카는 왼손에 흰 개구리를 자못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눈을 떼지 않는다.

“먹지 않으면 그만 놔 줘라.”

“... 예에, 예.”

조카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개구리가 뒷다리를 힘차게 내뻗으며 물속 돌 밑으로 모습을 숨긴다. 물속에 가라앉은 낙엽이나 돌과 흡사한 개구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물 흐르는 소리가 개구리의 꿈틀거림을 보여주며 다가온다.

거머리에겐 미안하다. 개구리와 거머리 사이에 내가 끼어들 일은 없었다. 누군가의 피를 빨며 삶을 이어가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야 나의 시선일 뿐이다. 넓게 본다면 그렇지 않은 삶이 가능하거나 하겠는가?

조카를 억압하던 사람들은 그때마다 즐거웠을까? 누군가를 괴롭히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개구리의 등거죽을 뒤덮은 칙칙한 빛깔이 뜨거운 액체로 녹아내리며 가슴으로 파고든다.

살고자 계곡의 색으로 자신의 몸을 뒤덮은 개구리의 몸부림은 인간세계에서도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며 정신을 추스르는 조카 또한 보호색으로 자신을 위장한 사람일 것이다. 보호색은 효과적일수록 바라보는 자의 슬픔을 자아낸다. 완벽한 보호색이 있을 리 없으니 그것이 슬픈 까닭이다.

“어째, 잡아보니 잡을만 하지?”

“아, 예, 예.”

“내일 올라간단구요?”

“예, 복학을 하기로 했거든요.”

조카는 원서만 넣으면 다닐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 1년을 다닌 뒤 휴학을 한 상태다. 달리 할 일도 없고 앞날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조카의 결정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떠나질 않는다.

계곡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포근한 날이 며칠 째 이어지고 있다. 앞산 너머 어딘가에 봄이 와 있다는 소리가 나무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적들의 시선을 피해 배에 간직한, 노오란 자신의 색깔을 온몸에 드러내놓고 팔팔팔팔 뛰어가는 개구리를 생각한다. 보호색을 벗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빛을 세상에 뿌리며 나아가는 개구리. 칙칙한 계곡에 노오란 빛의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려본다. 움직이는 노란 꽃송이들을 바라본다.

자신을 뒤덮은 보호색을 벗어던지며 나아가는 조카의 모습이 노란 개구리와 겹쳐지는 것을 환상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노랑거나 빨강거나 하얗거나 푸르거나 검은 색이면 어떠한. 자신이 입고 싶은 빛을 입고 햇살을 저으며 나아가는 길이라면 무엇인가에 얽혀 먹힌다 해도 슬프지는 않겠다.

■ 유승도 (시인)

마음이 푸근하고 정겨운 곳!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등
할인가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515-2988, 555-1087, 508-9377~8
팩스: 508-0101 인터넷: 070-7425-0518

* 36년 전통의 동진/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달력 카달록은 매년 8~9월에 우편발송합니다.

☎ 용품카탈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바림칼라등
30cm

공단등(6cm) @2,400원(80개이상)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공단등(10.5cm) @5,000원(24개이상)
공단등(13cm) @12,000원(12개이상)
공단등(20cm) @30,000원(4개이상)
공단칼라등(6,8,10,5,13,20,30cm)

비단정등
12cm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비단정등(12cm) @290,000원(100개)

바림등
6cm @2,600원(80개이상)
8cm @3,300원(96개이상)
10.5cm @5,500원(24개이상)
13cm @13,000원(12개이상)
20cm @35,000원(4개이상)
바림칼라등(6,8,10,5,13,20,30cm)

청사초롱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3cm / 25cm / 30cm
50cm / 1m ※ 기타주문생산

연일(일반)
5,000원(1루프)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LED전구(국산)
2,500원(50개이상)
1BOX: 50개 / 백열전구색
제조원: 동진전구

밀대양초(70개)
77,000원
★삼할양초(국산)
크기: 4.6×25cm

파라핀(12병)
50,000원
★하나양초(국산)
1BOX: 1.8L×12병

영원향(단)
@10,000원
(10케이스 이상)
길이: 14.2cm

주문은 헌불상/
02)2004-8216

동철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레이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불교인이거나 누구나 **giban**

나만의 힐링세계 **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는 **giban**

완전 선장과 안남 진정한 나의 **giban**